



다산 정약용과 손암 정약전의 왕복 서간 연구

남 윤 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목 차



머리말

I. 형제(兄弟)

II. 지우(知友)

III. 사제(師弟)

맺음말

- 국문요약 -

다산 정약용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주로 문학사와 사상사 방면에서 이루어져,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그리고 근래에는 여유당전서를 정본화하는 과정에서 서지적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었다. 이에 비하여 실제 삶을 구현하고 그 사상의 개인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인간적 면모와 사승을 밝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러한 연구의 미비를 보완할 수 있는 단초로서 정약용과 그의 중형 손암 정약전의 왕복서간이 주목된다. 현재 규장각 소장본 『여유당집(與猶堂集)』에는 정약용에게 보낸 정약전의 서간이 『손암서독(巽庵書牘)』이라는 편제 하에 총 13개 글이 수록되어있다. 이들 왕복서간에서는 형제의 일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정약용의 경학저술에 미친 정약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서간을 통해 때에 따라 형제, 지기, 사제의 관계를 맺으며 교류한 양상을 보였다. 형으로서 정약전은 아우 정약용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기도 하고, 시문이나 친구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처지를 마음깊이 이해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서로에게 스승과 제자가 되어 학문적 성장을 돕기도 하였다. 정약전은 청년시절부터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정약용의 학문을 지켜보며 격려나 질정을 해주었고, 때로는 저술동기를 제공하여 학문의 폭

을 넓혀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약용은 저서의 원고가 완성될 때마다 가장 먼저 정약전에게 보였다.

여기서 이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형제와 지우를 넘어선 사제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은 퇴계, 남인 계열의 학자라는 점 외에 그 친자(親炙)한 연원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 정약전과 정약용의 왕복서간을 통해, 정약전이 스승의 입장에서 후학인 정약용의 공부를 점검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학문적으로 계발과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정약전이야말로 정약용의 스승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저술의 부족으로 파악하기 힘들었던 정약전의 정치사상, 과학사상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인간으로서의 정약용’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에 문헌에 기초한 실제적인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정약용의 사상과 학문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다산 정약용이 조선후기 문학사, 사상사, 나아가 한국학 전체에서 중요한 인물임은 여태까지 풍부하게 축적된 연구성과들이 방증해줄 것이다. 그의 문학, 경학, 경제학은 일찍부터 주목되었고, 그 방대한 저술을 정본화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서지적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었다. 그런데 그 학술적 성과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 그 자체, 인간 정약용에 대해서, 그간 학계에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다. 최근에 와서야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힘입어 교우관계를 밝힌 연구가 있었고, 정약용의 인간적인 면모, 일상생활 등에 주목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렇게 ‘인간 정약용’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분야의 연구는 정약용의 광범위한 사상과 학문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누구의 아우로서, 벗으로서, 제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나 스승으로서 살아간 일상은 사유체계를 형성하는 데에 가장 기초적인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정제된 시문이나 저서보다는 일상의 대화에 가까웠던 서간에 잘 드러나 있고, 때문에 서간은 사상의 출발점을 포착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간 정약용의 서간 연구는 자녀교육이나 제자들과의 교유 등의 내용에 치중되었는데, 규장각 소장본 『여유당집』의 『손암서독』에 정약용에게 보낸 정약전의 서간이 실려 있어 두 사람의 관계와 주고받은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여유당전서』에 수록된 정약용이 정약전에게 보낸 서간들과 연계해가며 분석해본 결과, 집안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아우를 훈계한 정약전과 이를 마음에 새겨 자제들에게 전달한 정약용의 모습, 시에 차운하거나 글에 화답하여 보내고 친구들의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유배생활을 위로한 모습, 정약용의 저술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의견을 개진

하게 하는 등 학문적 성장을 도운 정약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양상의 다양한 측면을 크게 형제(兄弟), 지우(知友), 사제(師弟)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 형제(兄弟)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주고받은 서간 중에는 일상의 고민에 조언이나 충고를 해 주는 내용이 있다. 특히 가정문제를 상의한 경우가 주목된다. 한 집안의 구성원으로서, 폐족이 된 가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마주한 상황에 대하여 보다 현명하게 대응해나가하고자 했던 형제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리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원래 하고자 했던 바를 포기하거나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을 재점검하는 등 서로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후술하겠지만, 이 때 나온 두 사람의 의견은 차후 정약용의 저술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먼저 정약용 가족의 이사 문제를 논하는 정약전의 서간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지난번 편지에 남쪽으로 식구들을 옮기겠다는 말은 내가 보기에 한때 성이 나서 한 말 이기에 나 역시 성난 말로 답하였네. 그런데 지금 큰형님과 집사람의 편지를 보니, 자네의 이 계획으로 인하여 종이 가득 온갖 슬프고 괴로운 말이었네. 그제야 전에 자네가 했던 말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이미 무르익었음을 알게 되었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니 이에 조목조목 논하겠네. (-중략-) 자네가 만약 변함없이 뜻대로 결행한다면 나의 처자식들도 당연히 같이 올 테니 내가 아직 죽기 전에 당도한다면 그나마 함께 바닷물을 사이에 두고 바라볼 수는 있겠지. 그러나 땅과 집을 전부 팔아도 여기까지 오는 여행경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이고, 홀로 되어 연약하고 파리하게 병든 아이들은 또 제대로 거동할 수조차 없어 옛 집에 틀어박혀 죽을 날이나 기다리게 되고 말 것이네. 늙으신 큰형님의 아들이 아버지 없이 고아가 되어 또 길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되네. 자네의 이 계획으로 인해 서너집의 남은 사람들이 모두 얼어지고 쓰러지게 될 것인데, 자네는 어찌 차마 이렇게 하겠는가?¹⁾

위의 글에서 정약전은 정약용에게 가족들을 남쪽지방으로 이주시키지 말 것을 충고하였다. 현재 서간 실물이나 내용이 발견되지는 않으나, 위의 내용을 통해 정약용은 이미 가족의 이

1) 『巽庵書牘』, 「寄茶山」. “前書有南渡之說, 吾視之以一時憤發之言, 故吾亦以憤辭答之. 今見伯氏及家人書, 因君此計, 千言萬語滿紙悲苦, 始知前言非偶而其計已熟. 不可者有數端, 茲條論之. (-중략-) 君若決意無改, 則吾之妻子, 理當同來, 及吾未死之前, 猶與之隔水相望. 然盡賣田宅, 無以當行路之費, 幼弱羸病之孤兒, 又無以周旋進退, 猶當踰伏舊廬, 以待死日而已. 臨年伯氏之一子, 無父孤畸之姪兒, 亦永無依賴. 因君此計, 三四家子遺, 舉將顛沛. 君何忍爲是?”(이하 『巽庵書牘』 인용문은 모두 규장각 소장본 『與猶堂集』에 수록된 것이며, 번역은 정해림 편역주, 2002, 『다산서간정선』(현대실학사)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사문제에 대해 정약전에게 논의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대해 정약전은 반대의사를 밝혔는데, 다른 가족들까지 알게 되는 등 정약용이 실제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자 그만둘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했던 것이다. 정약전 역시 처자식을 그리며 가족과 가까이에서나마 있고 싶어 하는 정약용의 마음은 이해했을 것이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마음보다는 가족 모두의 앞날을 걱정하여 이주 계획을 그만두라 하였다. 실행만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정약전의 논리적인 설득과 충고를 받은 정약용은 가족의 이주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집안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정약용은 동생의 입장에서 형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정약전은 식구들의 이주를 반대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어려운 상황일수록 식구끼리 뭉쳐 타인의 외면이나 비방으로부터 서로 도와야한다는 점²⁾, 둘째, 번성했던 가문으로서 하루아침에 낙향하면 재기하기 어렵다는 점³⁾, 셋째, 호남은 자손을 기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점⁴⁾, 넷째, 호남은 기름진 땅이지만 여기에 거주한다고해서 가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⁵⁾을 들고 있다. 그리고 덧붙여, 호남으로의 이주 계획이 가난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면 오히려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 말해주고 있다.⁶⁾

그런데 여기서 정약전이 제시한 구체적인 조목들과 해결책은 후에 정약용의 글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흥미롭다. 이 서간은 글 중에 ‘7년 동안 귀양살이하다보니(七年謫居)’, ‘내 나이 오십에(吾年五十矣)’ 등의 구절로 미루어 보아 정약전이 유배생활을 한 지 7년이 되고 나이가 50세가 되는 1807년경에 쓴 것으로 추측되는데,⁷⁾ 2~3년 뒤에 집안의 자제들에게 보낸 증언, 가계, 서간 등에 이 내용이 상당 부분 보인다.

오늘날 고가(故家)의 후예로서 먼 지방으로 영락(零落)되어 와서 사는 사람들은 영달할 뜻은 없이 오직 먹고 살아가는 일에만 힘쓰고 있다. 심한 경우는 새처럼 높이 날아가고 짐승처럼 멀리 달아나려고 하여 우복동(牛腹洞)만 찾고 있는데,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면 자손들이 노루나 토끼가 되어버리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비록 편안히 농사 짓고 물 마시며 살아가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자네들은 우선 과거를 통한 벼슬살이에 마음을 두고, 그 이외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먹지 말도록 하라.⁸⁾

- 2) 『巽庵書牘』, 위의 글. “吾輩本以蕃族, 遭變之後, 忽成孤子, 故舊掉頭, 親戚掩鼻. 夫孤子人, 如涸轍之魚, 互相依附, 猶有暫時煦沫之助, 各自圖生, 必有不日消滅之憂. 此理之必然, 何不念之?”, “當吾患難之時, 骨肉不相顧, 則必有訾謗, 他人欲相救, 亦必有譏嘲. 與其依於畏譏嘲之他人, 寧依於避訾謗之骨肉.”
- 3) 『巽庵書牘』, 위의 글. “一朝落鄉, 先古世閱, 有誰知之, 後世孤寒, 有誰憐之.”, “猶當保守畿甸, 庶幾有他日之望.”
- 4) 『巽庵書牘』, 위의 글. “湖南非可居之地.”
- 5) 『巽庵書牘』, 위의 글. “今日商量, 似在於無食, 思南州也. 然此亦有大不然者. 蓋天下有可富之人, 無必富之地.”
- 6) 『巽庵書牘』, 위의 글. “治生之道, 豈有過於用之有節耶.”
- 7) 이는 정해림 편역주, 위의 책, 134면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 8) 『詩文集』18, '爲茶山諸生贈言', “近世故家遺裔零落遐遠者, 無意榮進, 唯以治生爲務, 甚則欲高翔遠引, 唯牛腹洞是索, 殊不知一入此中, 子孫便成麕兔. 雖復安居耕鑿, 生育蕃茂, 顧何益哉. 諸君且以科宦爲心, 毋生外慕.”

한 번 쓰러졌다 하여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하루아침의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먼 시골로 이사가 버리는 사람은 천한 무지렁이로 끝나고 말 뿐이다.⁹⁾

위의 두 인용문을 비롯하여 아들과 조카 등 집안의 자제들을 위한 글 곳곳에서, 정약용은 집안 사정이 어렵게 되었더라도 시골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앞서 정약전이 좋은 가문 출신으로 하루아침에 낙향하면 재기하기 힘들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장은 먹고살기조차 힘들 정도로 고생할지라도, 그저 안일한 삶을 영유하기보다는 가문의 부흥에 힘써야한다는 것이다. 언뜻 엄하게 훈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약용은 사실 똑똑하고 영민한 아이들이 자신으로 인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노루나 토끼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에 마음 아파했을 것이다.

특히 앞의 정약전의 서간 첫 부분을 상기해보면, 아래의 인용문은 마치 스스로를 꾸짖는 것 같기도 하다. 7년간의 유배생활에 지쳐 가족들과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지다 보니 오로지 식구들을 유배지와 가까운 남쪽지방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가계(家誡)는 그로부터 3년여 뒤인 1810년에 다산의 동암(東庵)에서 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¹⁰⁾, 그 사이에 정약용은 다산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마음에 안정을 찾아갔을 것으로 생각된다.¹¹⁾ 이제는 어엿한 스승, 부형이 되어 자제들에게 경계의 말을 주면서, 한때 감정이 앞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했던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들과 조카 등 집안의 자제들을 위해 준 조언, 경계의 말에는 지난날 자신의 계획을 요목조목 따져 한 걸음 성숙하게 해 준 형의 충고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정약용이 집안 자제들에게 어른이자 스승이었다면, 미숙하기도 했던 정약용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준 어른은 바로 중형(仲兄) 정약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示二兒家誡」에도 여실히 보인다.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吾今名在罪籍，使汝曹姑遯田廬。至於日後之計，唯王城十里之內，可以安處。若家力衰落，不能深入，須暫止近郊，蒔果種菜，以圖生活，待資賄稍贍，便入市朝之中，未爲晚也”，“自古禍家餘生，必高翔遠逝，唯恐入山之不深，究也爲麕爲兔焉而已。”(이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를 참고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9) 『詩文集』18, 「示二兒家誡」. “不必一踏而不起也。若不勝一朝之忿，勃然流徙者，終於忙隸而已矣。”

10) 『詩文集』18, 위의 글. “嘉慶庚午首秋，書于茶山東庵。”

11) 丁奎英, 『俟菴先生年譜』에 따르면 정약용은 1808년 다산으로 이사했다고 한다(“八年戊辰，公四十七歲。春徙居茶山.”). 이후로 마음에 안정을 찾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정해림 편역주, 앞의 책, 같은 면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정약용이 「茶信契節目」에 “다산의 여러 사람들은 그래도 다소 평안해진 뒤에 만난 이들이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일리 있는 해석인 듯하다. 「茶信契節目」에 대해서는 이을호, 1963, 「전남 강진에 남긴 다산계절목고」, 『호남문화연구』1(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에 처음 소개되었다. 각주의 「茶信契節目」 번역은 임형택, 2000, 「정약용의 강진유배기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 비평사)에서 인용하였다.

II. 지우(知友)

앞서 과감한 계획을 세웠던 아우와 그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꾸짖는 형, 그 형제지간의 면모를 보았다. 그런데 한편으로 정약용, 정약전 형제는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이해하는 지기(知己)의 관계이기도 하였다.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얼굴 한 번 볼 수 없던 두 사람은 서간을 통해서나마 소식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의지하였다. 유배지에 대해 글을 이어 짓거나 상대의 시에 차운하면서, 혹은 친구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감정을 나누기도 하였다.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정약용이 정약전에 대하여 가졌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아, 동복(同腹) 형제이면서 지기(知己)가 된 분으로는 세상에 오직 공 한 사람뿐인데, 공이 돌아가신 7년 동안 나만이 홀로 쓸쓸히 세상에 살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¹²⁾

외로운 천지 사이에 우리 손암선생만이 나의 지기(知己)였는데, 이제는 잃어버렸으니, 앞으로는 비록 터득하는 바가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입을 열어 함께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면 차라리 진작 죽는 것만 못하다. 아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자식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형제 종족들이 모두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처지에 나를 알아주던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슬프지 않으랴.¹³⁾

이 세상에서 자기를 알아주던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일 것이다. 인용문에 잘 나타나있듯, 정약용의 경우에 정약전이 그러한 존재였다. 가까이 있는 마을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다른 친지들보다도,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돈독했을 것이다. 생전에 형제는 유배지에서 겪는 한스러움, 주변의 지리와 풍속, 공부하는 중에 나는 의문 등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며, 다독여주었다. 각각 다른 곳으로 유배 보내져 죽는 날까지 만나지 못했지만, 서간을 전달할 자제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정약용과 정약전은 각자 자신의 유배지를 소재로 하여 쓴 글을 서로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거주하고 있는 동네를 생각보다 좋은 곳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먼저 정약용은 “세상에서는 강진을 남쪽의 사나운 독기가 서린

12) 『詩文集』15, 『先仲氏墓誌銘』. “嗚呼, 同胞兄弟而兼之爲知己, 又海內一人已矣. 鏞以獨夫, 踽踽然畸乎人, 今七年于茲矣, 如之何其不悲.”

13) 『詩文集』21, 『寄二兒(丙子六月十七日)』. “予子天地間, 只有我巽菴先生, 爲我知己. 今焉失之, 自今雖有所得, 將何處開口, 人與其無知己, 不如死之久矣. 妻不知己, 子不知己, 昆弟宗族, 皆不知己, 知己而死, 不亦悲乎.”

지방이라고 여기니, 이 때문에 죄인을 옮겨 살게 한다. 내가 여기에 산 지 오년인데, 무더위가 북쪽지방보다 덜하고 한겨울 추위도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¹⁴⁾고 밝히며 사람들이 가지는 선입견과는 다르게 그 지역의 기후와 지리적 위치가 좋다고 하였다. 이에 정약전은 답장을 보내 “미용이 흑산도를 보지 못한지라 강진을 즐거운 지역이라 하는구나.”¹⁵⁾라고 놀리면서 흑산도의 기후와 환경이 얼마나 온화하고 살기 좋은지, 강진도 과연 이만한 동네냐고 익살스럽게 되물으며 뽐냈다.

이렇게 형제는 암울할 수 있는 유배생활을 ‘생각보다 낫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려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글로써 유쾌하게 풀어내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두 사람은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 처한 지경에 대한 속마음을 은근하게 내비쳤다.

옛날사람들이 무더운 남방이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그렇게 여기고,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 마침내는 그 무고함을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물며 사람의 현명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공과 죄에 있어서라. 혹 차이가 심하더라도 실로 형체가 없으니 잡을 수 있겠는가! 내가 강진에 유배된 것도 참으로 적절한 일이다.¹⁶⁾

미용의 죄가 나보다 가볍다 하여 미용은 강진에 정배되었고, 나의 죄가 미용보다 무겁다 하여 나는 흑산도에 정배되었다. 무릇 세간의 억누르고 찬양함, 기리고 폄하함, 공과 죄, 사람의 이름과 실질이 맞지 않음은 모두 이와 같으니, 내가 또 흑산으로 유배 온 것에 무슨 유감이겠는가.¹⁷⁾

두 인용문은 각각 정약용의 「잡설(雜說)」과 정약전의 「부서후(附書後)」의 말미이다. 앞서 세간의 오해와 달리 직접 살아보니 유배지의 기후나 환경이 좋다고 말한 것에 이어, 인간사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지적하였다. 정약용은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여러 사람들이 오랜 시간 믿는 바는 그대로 굳어지기 마련이므로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이에 정약전도 세상에는 명과 실이 다른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글 전체의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보편적인 진술로 마무리하는 이 부분은 곧 자신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가져다 준 근거가 실제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다.

14) 『與猶堂集』, '雜說'. “世以康津爲南方瘴癘之鄉 由是遷徙罪人. 余居五年, 覺炎熱薄於北方, 特冬寒不甚耳…” (이하의 『여유당집』은 모두 연세대 소장본 『여유당집』임을 밝혀둔다. 1책으로 된 필사본으로 따로 권차(卷次) 표시가 없다. 이 자료에 대한 서지사항은 김영원, 2012, 「연세대본 『여유당집』에 대한 서지적 검토」(『남명학연구』3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에 자세하게 밝혀져 있다.)

15) 『與猶堂集』, '附書後'. “美庸不見黑山島, 故因康津爲樂郊也.”

16) 『與猶堂集』, '雜說'. “古有人指之爲炎徼, 千萬人從而指之. 千萬年之人從而指之, 竟無以白其誣者. 況於人之賢不肖及其功與罪. 或相徑庭, 寔無形可執哉. 以余配於康津, 真相遇哉.”

17) 『與猶堂集』, '附書後'. “以美庸之罪謂輕於我, 配美庸於康津, 以我之罪謂重於美庸, 配余於黑山島. 凡世之抑揚褒貶功罪人名實之乖舛 悉悉如此. 余又何恨於配黑山哉.”

이외에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면서 감정을 교류하기도 하였다. 소식·소철 형제가 주고받은 시에 화운하여 여러 차례 정약전에게 보내기도 하고, 이를 받아본 정약전이 다시 차운하여 정약용에게 보내기도 하였다.¹⁸⁾ 선인들이 향유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시를 통해 형제의 우애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 흐뭇했을 것이다. 또한 절친한 친구의 소식을 전하면서 즐거워하기도, 슬퍼하기도 하였다. 주고받은 서간에는 형제의 오랜 벗 윤영희(尹永禧, 1761~?)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정약용이 그와 만나 재미있게 이야기 나눈 일화를 전하자,¹⁹⁾ 정약전은 그나마 유배지가 멀어서 친구들을 볼 수 있는 아우를 새삼 부러워하였다.²⁰⁾

III. 사제(師弟)

정약용이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과 성호 이익(星湖 李瀾, 1681~1763)을 사숙(私淑)하였다는 점은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어왔다. 기호남인의 학통을 이어, 자신 이후로는 ‘다산학단’이라 칭할 만큼 뚜렷한 경향의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해낼 만큼 정약용은 훌륭한 스승이기도 하였다.²¹⁾ 그러한 반면, ‘정약용의 스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리적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선학들의 유고를 읽으면서 자기사상의 밑거름과 방향성을 마련하고 서학(西學) 관련 서적을 접하면서 시야를 넓혔음은 그 저술의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직접 남긴 언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²²⁾, 결정적으로 어느 누구의 문하에서 수학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특정 인물을 스승으로 하여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적이 없었을까?

실제로 예를 갖추어 가르침을 청한 적은 없었을지라도, 마음으로 공경하며 스승으로 따랐던 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정약용의 중형 정약전이다. 형제가 주고받은 여러 서간과 정약전 죽음 뒤에 정약용이 쓴 묘지명, 그리고 다른 이에게 보낸 서간 등에는 정약용이 정약전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먼저 정약용이 정약전에게 보낸 서간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다.

『시경강의(詩經講義)』는 그때 우리 선왕께서 내리신 포장(褒獎)이 두터웠고 우리 선사(先師)께서도 인가(印可)해 주신 것이 매우 절절하였으므로 제 생각으로도 이런 일은 얻기 어렵겠다고 여겼었는데, ...²³⁾

18) 이러한 사실은 연세대 소장본 『여유당집』을 통해 밝혀지게 되었는데, 허경진, 2012, 「새로 발견된 손암 정약전의 시문집에 대하여」(『남명학연구』3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개략적으로 소개되었다.

19) 『詩文集』20, 「答仲氏」. “尹猥心再昨年海南相見時, 我曰不死而相見異哉. 尹曰人死豈易事耶, 我曰人死最易事. 尹曰罪惡盡然後人死, 我曰福祿盡然後人死, 相笑而罷.”

20) 『巽庵書牘』, 「答茶山」. “近有可羨者, 唯君以陸居之故, 能逢尹畏心, 重與開懷劇談, 此差可羨.”

21) ‘다산학단’의 실제 규명과 학술사에서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임형택, 앞의 글에서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

22) 『詩文集』16, 「自撰墓誌銘」(壙中本). “既娶游京師, 則聞星湖李先生漢學行醇篤, 從李家煥, 李承薰等得見其遺書, 自此留心經籍, 既上庠, 從李槩游, 聞西教見西書.”

23) 『詩文集』20, 「答仲氏」. “詩經講義, 其時我先王天褒隆重, 我先師印可深切, 自以爲此事難得, ...”

다만 완전히 끝마치지 못하고 끝내는 서적(西賊, 홍경래(洪景來))의 난리를 당하여 대강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선생께서 빗질을 가해주시어 잘 된 것은 서두(書頭)에 비평을 써서 인가(印可)를 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별도로 기록하여 산삭하거나 윤문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²⁴⁾

첫 번째 인용문에서 정약용은 정약전을 일러 ‘우리 스승님(我先師)’라고 칭하였고,²⁵⁾ 두 번째 인용문에서 역시 ‘선생(先生)’이라 하였다. 스승으로 여기는 마음이 호칭에서 드러난 것이다. ‘인가(印可)’역시 두 인용문 모두에서 보이는데, ‘인가’란 불가(佛家)에서 선승이 제자의 득법을 인정해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여기서도 정약용이 정약전을 스승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이 시절의 형제는 앞서 공부하던 정약전이 스승의 입장에서 후학인 정약용의 공부를 점검해주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이때부터 경서를 공부함에 있어 정약전을 스승으로 여기고 공경했던 것이다.

그런데 혹시 ‘인가’라는 용어가 관습적인 표현으로 쓰였던 것은 아닐까? 이에 『여유당전서』에서 ‘인가’를 찾아보니, 총 7번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방대한 분량을 고려해보면 ‘인가’라는 용어는 정약용에게 있어 그저 상투적인 표현에 그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 중 4번은 정약전을 지칭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정약용이 그를 스승으로 여겼음은 더욱 선명해진다. 정약전 이외에는 비록 해당 문맥에서 겸양의 표현에 가깝기는 하지만, 문산 이재의(李載毅, 1772~1839)에게 2번²⁶⁾, 대산 김대순(金邁淳, 1776~1840)에게 1번²⁷⁾ 쓰였다. 이 세 사람이 정약용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공통점은 정약용과 경학 토론을 했다는 점, 개별 저서 전체를 읽고 평가해주기도 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고 이후의 수정, 개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약용이 상대에게 인가받았다고 표현했던 것은 크게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그렇지만 정약전과의 관계는 이들과의 관계와는 차별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이재의와

24) 『詩文集』20, '答仲氏', “但未及卒業, 遂值西賊之亂, 未免草草收結. 先生幸加爬櫛, 其善者書頭批評, 以示印可之意. 其有疑者, 別作一錄, 使得益加刪潤若何.”

25) ‘선사(先師)’는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스승님’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상대방, 즉 정약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읽힌다.

26) 『詩文集』19, '答李汝弘'. “鄙人於易說禮說, 多有二千年來絕無所本之言, 老兄猶且虛受公聽, 不惜印可. 獨於趙岐之說, 遲回却顧, 疑有訛謬, 胡乃待趙岐不若東夷之鄙人乎.”, “頃以禮疑一條, 仰質高明, 伏承回諭, 乃蒙印可.”

27) 『詩文集』20, '又書'. “諸說之例蒙印可, 又非始慮攸及. 感領珍報, 譚不能悉.”

28) 물론 경전 공부에 깨달음을 주거나 저술을 검토해주었다고 해서 모두 ‘인가해주었다’고 한 것은 아니다. 석천 신작(申綽, 1760~1828), 연천 홍석주(洪奭周, 1774~1842) 등도 이들 못지않은 질정과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이다. 다산의 경학 토론 양상에 대해서는 실시학사경학연구회 편역의 한길사 ‘다산경학자료역편’ 시리즈인 『다산과 문산의 인성논쟁』(1996), 『다산과 석천의 경학논쟁』(2000), 『다산과 대산·연천의 경학논쟁』(2000), 『다산의 경학세계』(2002)에 상세하게 정리되어있다.

김매순 등의 인물들과는 해배 후 그간의 저술을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토론하였다. 각자의 뚜렷한 사유방식이나 학설이 정립된 후에 의견을 나누었으며, 서로 나이차는 있더라도 학술적인 면에서만만큼은 동등한 위치에서 발언했던 것이다. 반면 정약전은 정약용의 청년시절부터 그 학문의 수준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준 존재였다. 그리고 이 후로 유배기 전반에 걸쳐 정약전의 사망 전까지, 정약용은 저서의 원고가 완성될 때마다 자제들에게 일차 수정을 맡긴 후 가장 먼저 정약전에게 보였다. 학문적으로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계발과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정약전이야말로 정약용의 스승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에도 역시 스승으로서의 정약전이 그려져 있다. 정약용은 「선중씨묘지명(先仲氏墓誌銘)」에 일화를 덧붙여 청년시절 자신의 스승역할을 해준 정약전에 대해 언급하였다.

지난 무술년 겨울 아버님께서 화순현감으로 계실 때 나는 형님 손암과 함께 동림사(東林寺)에서 독서하여 40일 만에 『맹자』 한 질을 다 마쳤는데, 은미한 말과 오묘한 뜻에 대해 공에게서 많은 부분 인가(印可)받았다. 공은 찬물로 양치질하고 눈 내리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매양 임금과 백성을 요순시대의 군민(君民)으로 만들 뜻이 있음을 말하였다.²⁹⁾

1816년 6월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끝에 죽고, 7년 후 정약용은 그를 위해 묘지명을 지었다. 이 뒤에 일화를 덧붙여 젊은 시절 형과 함께 절에서 공부한 경험을 술회하였는데, 여기서 무술년은 1778년으로, 정약용이 17세, 정약전이 21세가 되던 해였다. 그리고 위의 서간에서와 같이 이때에도 자신의 경전공부를 정약전으로부터 ‘인가’받았다고 표현하였다. 정약용은 청년시절 자신의 스승역할을 해준 정약전을 추억한 것이다.

이어 정약전이 당시의 임금과 백성을 요순시대의 군민(君民)으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고 한 대목에서는 그 정치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이 구절은 문맥상 『맹자』에서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맹자는 이윤(伊尹)에 대한 세간의 소문이 오해라고 하면서 요순의 도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고자 했던 목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³⁰⁾ 바꾸어 말하면, 이윤은 현실을 좌시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전의 의미를 되새길 때, 이 서술은 당시 정약전에게 실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자 했던 의지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시절 스승과도 같은 존재로 여기며 그의 영향을 받았던 정약용은 이러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그 경세학의 기초적인 사유를 키웠을 것이다.

29) 『詩文集』15, 「先仲氏墓誌銘」. “昔在戊戌冬, 家君宰和順縣, 余與巽菴, 讀書東林寺. 四句了孟子一部, 微言妙義, 多所印可. 氷泉漱齒, 雪屋無寐, 每語有堯舜君民之志.”

30) 『孟子』, 「萬章 上」. “湯三使往聘之, 既而幡然改曰 與我處畝之中, 由是以樂堯舜之道, 吾豈若使是君, 爲堯舜之君哉. 吾豈若使是民, 爲堯舜之民哉. 吾豈若於吾身, 親見之哉.”, “予將以斯道, 覺斯民也, 非予覺之而誰也.”

정약전에 대한 정약용의 인식은 아들에게 보내는 서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정약전이 죽고 난 직후에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낸 서간이다.

경집(經集) 2백 40책을 새로이 장정하여 책상 위에 놓아두었는데, 내가 장차 그것을 불살라 버려야 한단 말이냐. 울정(栗亭)의 이별이 천고에 견디기 어려운 애절한 슬픔이 되었구나. 것처럼 큰 덕과, 큰 그릇, 깊은 학문과 정밀한 지식을 너희들은 모두 알지 못하고, 다만 그 오황한 것만 보고서 고박(古朴)하다고 지목하여 조금도 흠모하지 않았다. 자식이나 조카들도 이와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야 말해서 무엇하랴. 이것이 지극히 애통하고 다른 것은 애통할 것이 없다.³¹⁾

6월 17일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정약전이 죽고 열흘 뒤에 쓴 서간인 듯하다. 정약용은 외딴 유배지에서 긴 시간을 보내다 세상을 등진 형의 신세를 아파하였다. 게다가 정약전은 늘 자기학문을 알아보고 인정해주던 존재였기에, 그의 죽음 이후 자신의 저술이 더 이상 제대로 된 감식안을 만날 수 없음을 한탄하였다. 끊임없이 원고를 고치면서 경전 본의에 가까이 다가가려 했던 정약용을 이해하고 격려해준 이도 정약전뿐이었다.³²⁾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약전의 크고 깊은 학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두 사람은 학문하는 자로서, 자기존재의 이유가 상대에게 있었던 것이다.

정약용은 실제로 그에게 저술을 보여 평가받곤 하였는데, 「선중씨묘지명」에서는 『역전(易箋)』, 『예전(禮箋)』, 『악서(樂書)』, 『매씨서평(梅氏書平)』과 사서설(四書說) 등을 언급하였다. 특히 『악서』에 대해서는 정약전의 지적이 정확한 말이라 생각하여 이에 따라서 원고를 대폭 고쳐 썼고, 그제야 잘 맞지 않던 부분들이 비로소 맞아떨어졌음을 밝혔다.³³⁾ 또 치마에 첩(輒)을 하는 법에 대해 정약전의 논박을 수용한 경우도 있었다.³⁴⁾ 이처럼 정약전은 정약용이 경학공부를 하면서 잘 풀리지 않거나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스승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한편 정약전은 정약용의 저술에 직접적인 동기를 주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정약용의 「해조론(海潮論)」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해조론」은 조수간만의 차가 생기는 이유와 달과의 관계, 그리고 동해에는 조수가 없는 까닭 등에 대하여 정약용이 자신의 관련 지식을 풀어놓은 론(論)이다. 다섯 편으로 이루어진 이 글은 정약전의 질문을 받은 정약용이 그에 대해 답

31) 『詩文集』29, 「寄二兒-丙子六月十七日」. “經集二百四十冊, 新裝置案上, 吾將焚之乎. 栗亭之別, 遂成千古, 所切切哀痛不堪者. 如許大德大器, 邃學精識, 汝等皆不知, 唯見其迂闊, 指爲古朴, 無一分欽慕之意. 子姪如此, 他尙何說. 此爲至痛, 他無所慟耳.”

32) 『巽庵書牘』, 「寄茶山」. “今所爲正本者, 安知不爲草本也. 古人以校書 比之掃塵 非但校書爲然 著書亦宜然 君之改而又改, 屢易藁而不可已者, 不但垂法於後學, 抑爲改過之大端, 此豈非聖賢公天下之心哉! 嗟乎, 惜哉! 有誰知之, 有誰知之. 至於賞心無人之歎, 烏得不然!”

33) 『詩文集』15, 「先仲氏墓誌銘」. “鋪靜思公言, 眞確不易, 乃毀前藁, 悉從公所言. 於是儀禮庭縣之序, 周禮考工記, 周語左氏傳, 凡疑文錯數, 悉皆妙合, 無纖毫違舛.”

34) 『詩文集』20, 「答仲氏」, “裳輒之駁, 是初頭錯解, 旋已覺悟而改之矣.”

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완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서간과 정약용의 「해조론」을 함께 보면 알 수 있다.

정약전은 서간에서 조수가 달과 관련됨을 전제하고, 달이 나거나 질 때는 조수가 있지만 중천에 있을 때는 조수가 없는 까닭, 초승달과 그믐달이 뜰 때에는 조수의 양이 많다가 반달이 뜰 때에는 가장 적고 보름에는 또 많은 까닭에 대해 답을 달라 하였다.³⁵⁾ 이에 대한 정약용의 답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여유당전서』에 실린 「해조론」에서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상세히 볼 수 있다.³⁶⁾ 그런데 이 두 질문에 관련된 답은 「해조론」 다섯 편 전체가 아니라 처음 두 편에서 각각 정리하였다.³⁷⁾ 그렇다면 정약용은 무엇이 계기가 되어 「해조론」의 나머지 세 편을 더 작성했던 것일까? 다음의 두 인용문을 보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바다 조수의 이치는 전에 그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는데, 다만 동해에 조수가 없는 이치는 끝내 알지 못하겠네. 혹 이해되는 것이 있으면 편지에 써주는 것이 어떠한가. (-중략-) 그 전문을 보내줄 수 있겠는가. 연전에 해조설도 그 사이에 보았는데, 역시 앞부분뿐이었네.³⁸⁾

동해에 조수가 없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³⁹⁾

위의 인용문은 정약전이 정약용에게 보낸 서간의 일부이고, 아래의 인용문은 정약용 「해조론」3의 첫 문장이다. 일전에 조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은 「해조론」1~2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간이나 함께 보낸 글로 받아본 것을 의미할 것이다. 정약전은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동해에는 왜 조수가 없는가’하는 또 다른 궁금증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정약용이 다시 의견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편 역시 서간을 통한 정약전의 질문이 그 저술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처음 정약전이 조수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정약용이

35) 『巽庵書牘』, 「寄茶山」. “居海既久而潮汐之往來盛衰, 終有解不透者, 君或有測知耶? 月上地面則潮始至, 月午則始退, 月入地底則又至, 既以月出而至. 復以月沒而至者, 是何故也. 月初生極盛, 至上弦極縮, 月既望極盛, 至下弦極縮, 月晦復盛, 既以月盈而盛, 復以月晦而盛者, 又何故也.”

36) 조수에 관한 논의는 정약전의 서간으로부터 시작된 듯하다. 정해림 편역주, 2002, 앞의 책, 144면에서는 위의 서간 내용이 “다산의 「해조론(海潮論)」에 대한 의견인 것 같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정황상 정약전의 서간이 보다 앞선 시기의 것으로 생각된다. 정약용의 「海潮論」1에서는 밀물과 썰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정약전의 질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巽菴先生(余仲氏)久居海島, 驗其候而概言之曰, 月出而潮, 月沒而潮其晝者謂之潮, 宵者謂之汐, 斯不易哉. 潮之故在月, 潮之故在月, 夫人知之. 潮之故在月則月出而潮, 月沒而退理也. 今也月出而潮, 月沒而潮, 唯中天是惡, 斯何理也. 余竊思之曰 …).

37) 「海潮論」2는 “潮之故在月, 夫人知之. 潮之故在月, 則月盈而潮贏, 月晦而潮縮, 理也. 今也月盈潮贏, 月晦潮贏, 唯二弦是惡, 斯何理也. 斯者日之故也…”로 시작된다. 각주 27번과 비교해보면 이는 「海潮論」1에 인용한 정약전의 질문임을 알 수 있다.

38) 『巽庵書牘』, 「答茶山」. “海潮之理, 前得其說, 令人惺悟. 但東海無潮之理, 終不可知, 或有理會, 書示如何. (-중략-) 其全本可投示也. 年前海潮說, 此中所見, 亦只上段耳.”

39) 『詩文集』11, 「海潮論」3. “東海之無潮也何居.”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이를 받아본 정약전이 다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새롭게 질문 하자, 정약용이 이에 대한 답을 작성한 것이다.⁴⁰⁾

이외에 흥미로운 부분은 정약전이 조수현상의 원리에 대해 『주역(周易)』과 같은 묘한 이치를 담은 책조차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러워했던 점이다.⁴¹⁾ 이는 일견 기존 유학적 지식의 한계를 절감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약전은 고립된 유배지에서 자연을 느끼며 흥취를 즐겼던 일반적인 유배객의 모습에서 나아가, 자연현상과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다. 정약용에게 준 정약용의 서간은 남아있는 글 자체가 많지 않은데 비해 천문, 지리 등 과학에 대한 언급이 상당하다. 방대한 저술과 학문적 성취에 비하여 빈약하다고 평가되는 정약용의 천문지리 관련 연구와 비교해보면 그 관심의 차이는 두드러진다.⁴²⁾ 『자산어보(茲山魚譜)』와 같은 저술도 이러한 주변현상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하여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맺음말

이상에서 정약용과 정약전이 주고받은 서간을 통해 두 사람이 때에 따라 형제, 지기, 사제의 관계를 맺으며 교류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약전이 형으로서 가문의 장래를 위해 성급한 아우의 계획을 반대한 논지가 훗날 정약용이 집안 자제들에게 보낸 경계에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정약용의 교육사상에 정약전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지기의 관계로, 적적하고 암울할 수 있는 유배생활을 시문이나 친구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달래곤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서로에게 스승과 제자가 되어 학문적 성장을 도왔다. 정약전은 청년시절부터 정약용의 학문을 지켜보며 격려나 질정을 해주었고, 때로는 저술동기를 제공하여 학문의 폭을 넓혀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서간에 나타난 두 사람의 관계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정약용의 학술적인 글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일상생활 모습이나 감정의 흐름 등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었다. 둘째, 정약용의 사승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약전이 스승역할을 해 주었음을 실질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약전의 경우 남아있는 저술이 적어 그 사상이나 학문세계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는데,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사상, 과학사상 등의 실마리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지점들은 ‘인간으로서의 정약용’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에 문헌에 기초한 실제적인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일

40) '海潮論'4는 달의 운행 방향에 따라 같은 초하루, 보름, 그믐이라도 조수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이므로 1~3편에 대한 심화로, '海潮論'5는 백성의 삶에 조수가 미치는 영향과 조수현상의 성격을 밝히고 있으므로 글 전체의 마무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1) 『巽庵書牘』, 「答茶山」. “周易之開發微妙, 而海潮消息, 不少概見. 此後學之深恨也.”

42) 문중양, 2006, '19세기의 호남 실학자 이청의 『정관편』 저술과 서양 천문학 이해', 『한국문화』37, 126면에서 확인된다.

상의 삶은 사유방식이나 가치관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약용의 사상과 학문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원서

- 『與猶堂全書』(신조선사 여유당전서를 근본으로 한 표점본), 2013, 다산학술문화재단
『與猶堂集』(규장각 소장 필사본)
『與猶堂集』(연세대 소장 필사본)
丁奎英, 『俟菴先生年譜』

* 역서, 연구서

- 실시학사경학연구회 편역, 1996, 『다산과 문산의 인성논쟁』, 한길사
실시학사경학연구회 편역, 2000, 『다산과 석천의 경학논쟁』, 한길사
실시학사경학연구회 편역, 2000, 『다산과 대산·연천의 경학논쟁』, 한길사
실시학사경학연구회 편역, 2002, 『다산의 경학세계』, 한길사
임형택, 2000,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 비평사
정해림 편역주, 2002, 『다산서간정선』, 현대실학사
김상홍, 2003, 『다산문학의 재조명』, 단국대학교출판부
『여유당전서 미수록 다산간찰집』, 2012, 다산학술문화재단

* 논문

- 이을호, 1963, 「전남 강진에 남긴 다산계절목고」, 『호남문화연구』1
서종태, 1992, 「손암 정약전의 실학사상」, 『동아연구』24
문중양, 2006, 「19세기의 호남 실학자 이청의 『정관편』 저술과 서양 천문학 이해」, 『한국문화』37
심경호, 2009, 「문자와 매체 : 조선선비의 문자생활과 지적 교류」, 『국학연구』14
탁현숙, 2011, 「다산 정약용의 서간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김보름, 2011, 「“여유당집”의 성립에 관한 고찰」, 『다산학』18
김영원, 2012, 「연세대본 『여유당집』에 대한 서지적 검토」, 『남명학연구』36
허경진, 2012, 「새로 발견된 손암 정약전의 시문집에 대하여」, 『남명학연구』36
김언중, 2012, 「다산의 세계(世系)와 지친(至親)들」, 『다산학』21
진재교, 2012, 「다산과 문학 -인간 다산과 다산의 인간학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50